



면세점 4사
2분기 흑자행진
구조조정 통했다
L1

metro®

Life

CJ올리브영
상반기 매출
3조3000억 돌파
L2



46년간 이어온 생명 존중... '지속가능한 상생' 보폭 넓힌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은 '인간 존중'과 '가치 창조'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제약 기업의 본업 경쟁력과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일상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확산한다.

◆ 생명을 나눈 사랑의 헌혈

한미약품그룹 사회공헌의 첫 번째 축은 '생명존중'이다. 주변에서 소외된 이웃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그 결실이 바로 198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국내 제약 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 사랑의 헌혈이다. 올해는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 적십자사 표창도 수상했다. 이 기념식은 보건 복지부가 주최하고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익 행사다.

국내 제약업계 최장 헌혈 캠페인 '한·라·봉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 미래세대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시청역 헌혈의 집 개소에 직접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그룹이 추구하는 나눔을 상징한다. 또 지난 46년간 계속된 국내 제약 업계 최장 기록이다.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인원은 1만 1857명, 누적 헌혈량은 총 379만cc에 달한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 증서를 기부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인 6247매의 헌혈증서는 한국혈액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전달됐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다.



한미약품그룹 임직원이 상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임직원이 함께하는 맞춤형 봉사

두 번째 축인 '상생'을 위해서는 연중 상시 다양한 이웃과 소통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봉사를 뜻하는 한·라·봉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임직원은 4922명, 누적 봉사 시간은 1만 4851시간을 달성했다.

신규 캠페인 한미 헬스앤호프도 운영하고 있다. 신입 공채 교육생들이 입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연례 행사로 정착시킨 것이 특징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국내 영업본부 공채 교육생 40명이 성장기 균형 있는 식습관을 돕기 위한 건강 도시락 60세트를 만들었다. 고단백 샌드위치와 저당 마들렌을 준비했고 서울 강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명진들꽃사랑마을'의 아이들에게 공유했다.

하반기에도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 36명이 베이킹 전문가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레시피 실습을 통해 건강 도시락을 제작했다. 도시락 42세트와 생과일 꽃 케이크 11개는 서울 강동 소재 아동보육시설 '강동꿈마을'에 전해졌다.

◆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

한미약품그룹은 대표 브랜드인 텐텐, 완전두유 등을 매개체로 미래 세대를 향한 응원도

펼친다.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물론, 안전망을 구축하고 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하반기 열리는 '제8회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를 후원했다. 이 대회는 청음복지관이 주관하는 경연으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발굴, 취업, 사회 진출 등에 중점을 둔다.

9월에는 예선이, 10월에는 본선이 각각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신한 메뉴 개발을 주제로 한 '완전두유 창의상'을 신설했다. 참가자들은 식물성 음료 제품인 완전두유 더진한국 산공 무가당'을 공식 재료로 활용해 건강 메뉴를 선보이면 된다. 커피를 비롯해 카페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장애인 바리스타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 경쟁력·전문성 적극 활용 수요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실제로 이미 한미약품그룹 내에는 사내 카페 '이텔 가든'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 재할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고용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편, 어린이 브랜드 텐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텐텐



지난 6월 서울 강서 소재 스카리아트홀에서 열린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미사이언스 심병화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오른쪽)이 표창 수여를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제품 상단에 경찰청 '안전드림 앱'에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보호자가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앱에 등록해 아동 실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강동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실종 아동의 신속한 신원 확인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 초등 자녀 30여 명이 텐텐과 함께하는 종비의 변신 대작전에 참여했다. 어린이 멀티비타민 음료 텐텐 비타튼을 분리 배출하며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는 등 자원 순환의 개념을 배웠다.

또 임직원들은 '완전두유 어게인'을 통해 수거한 종이팩을 지역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와 후지로 교환하는 등 자자체 환경 사업에 실질적으로 동참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제약 기업 정체성을 공고히 해 건강·복지·환경의 통합 가치를 건강 증진, 생활 위생 개선, 친환경 등으로 보다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이 중심이 된 봉사활동을 사내 문화로 뿌리 깊게 내재화하는 동시에 투명한 기부 플랫폼 및 집행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우리 사회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 7월 경기 양평 블루비스타 호텔에서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들이 '건강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 자원 순환 캠페인 '완전두유 어게인'

/한미약품그룹

메트로 한줄뉴스



▲ '축구 스타' 호날두, 은퇴 가능성 언급...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
/사진 뉴시스
▲ 선두 KT-3위 LG, 운명 가른 4연전 이후 한 달 만에 재격돌

▲ '4번 타자' 이정후, 2경기 연속 안타... 시즌 타율 0.292
▲ 아스널, 맨시티와 커뮤니티실드서 3-0 완승... 3년 만에 우승

▲ 이동국 품은 포엣 감독, 임시 사령탑으로 태극전사 이끌까
▲ 김시우, PGA PO 1차전 준우승... 임성재·김주형과 함께 2차전 진출